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장석주 시인

현실은 변화를 겪으며 요동친다. 이 변화는 갑작적이고, 수량적이며, 실제적이다. 하루만 자고 일어나도 예전 세계는 사라지고, 새로운 변화의 세계가 펼쳐진다. 농경 중심의 전통사회가 사라지고 산업사회와 정보사회를 거쳐 탈산업사회로 들어선 지도 오래다. 그 사이 농업 인구는 소멸하거나 소수화되고, 디지털 뇌를 장착한 새로운 문명인이 몰려왔다. 인류가 한 번도 겪지 못한 후기 탈산업 사회의 디지털 환경 속에서 문명인들은 자기 착취를 일삼고 피로라는 만성적 질병에 찌들어 간다.

이 변화를 긴 시간 단위로 조망하면- 도로는 넓어지고, 건물은 높아졌다. 살림 규모는 커졌고, 명목상 가계 수입은 늘었다. 해외여행이 늘고, 집값은 다락 같이 올랐다. 지역을 가리지 않고 음식점이나 음식 맛이 짜거나 달게 변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현실 변화의 품목이다. 짜고 단맛에 대한 선호가 일반화된 탓이라고 추측하지만, 음식 맛이 왜 이토록 달고 짜게 되었는지, 그 균일화의 배경이 무엇인지는 딱히 알 수가 없다.

과거와 견주어서 책을 읽는 독자나 신문 구독자가 준 대신 스마트폰과 태블릿이나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이 부족 늘었다. 영화는 색감이 화려하고, 촬영 기법은

이 일순간에도 시간은 있다

세련되었으며, 내용은 더 잔혹해졌다. 잔혹 범죄가 늘어난 현실을 머금은 탓일 테다. 하지만 피가 튀기는 폭력이 난무하는 영화를 관람하는 것은 고문받는 것만큼이나 끔찍한 경험이다.

어느 사회에나 청년들은 사회의 최전선에서 오늘의 변화를 가장 먼저 맞고 실감한다. 이들이 사회 변화의 촉매이자 발화점이 된 예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한국의 '4·19혁명' 세대, 일본의 '전공투' 세대, 프랑스의 '68혁명' 세대, 반문화·반전운동을 이끈 미국 '히피' 세대의 중심은 청년들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의 청년세대는 취업 절벽이나 계층 이동의 사다리 가 사라진 곤경 속에서 '스펙 경쟁'을 하느라 제 존재 역량을 다 쏟는다. 이들은 부의 양극화와 사회적 기회의 불공정에 분노로 들끓지만, 불안과 압박을 안고 '생존 게임'에 속수무책으로 내몰릴 뿐이다. 올해도 수능이 끝나고 50만 명이 넘는 청년이 현실의 최전선으로 몰려온다. 이들 중 대다수가 '무제'라고 불리는 소득 하위 집단에서 생존을 위해 분투할 것이다.

이들을 하나의 이데올로기나 하나의 라이프스타일로 묶을 수 없다. 청년세대는 다른 취향과 감성, 시대정신, 마음가짐을 가진 개별자의 집단이다. 그럼에도 청년을 한 묶음으로 호명하는 움직임은 늘 있어 온 일이다. 라이프스타일의 특이점을 끄집어내 청년세대에게 다른 이름을 붙이는 미디어의 작명술은 감탄할 만하다.

그 작명술에 따르면 '88만 원 세대'가 몰려왔다 빠져나가더니, '90년대생'이 오고, 지금은 'MZ세대'가 몰

려온다. 'MZ세대'가 몰려난 자리를 또 새로운 청년세대가 채울 것이다. 과연 부정적 척박해진 노동 시장에서 구직 활동을 펼치는 오늘의 청년은 누구인가? 당신이 오늘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만난 아르바이트하는 청년, 건설 노동이나 배달 노동을 하는 이 청년은 누구인가? 만일 당신이 기성세대라면 그들은 당신의 딸과 아들이고, 혹은 동생이거나 조카일 것이다.

'서바이벌'이 생의 목표가 되어 버린 한국의 청년세대에게 현실은 '지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최근 TV에서 서바이벌 포맷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끄는 현상도 현실임을 이라는 막다른 길에 내몰린 청년세대의 답답한 현실을 반영한다. '지옥'에서의 살아남음은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것일까? 우리는 너무 늦은 게 아닐까?

나는 청년세대에게 가느다란 희망이 될 T.S 엘리엇의 '황무지' 한 구절을 들려주고자 한다. 시인은 "백 번이나 망설이고, / 백 번이나 망상하고 / 백 번이나 수정할 시간은 있으리라"라고 노래한다. 우리 앞에 무슨 시간이 있는 것일까? 그것은 수정과 결단의 시간이다. 불평등과 불공정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현실을 혁신하려는 실존적 각성과 함께 행동에 나설 동기만 있다면 이 일순간에도 시간은 있다!

언제나 가장 늦었다고 생각한 순간이 결단을 내리기에 가장 빠른 시간이다. 청년세대여, 포기하지 말자.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고 붙잡으라. 지금은 "감히 한번 해 볼까? 천지를 뒤흔들어 볼까?"라고 스스로의 결단을 촉구할 순간이다.

종교칼럼



황성호 광주기독교사회복지회 부국장

어릴 적 놀 때는 경계가 없었다. 우리 동네 아이들과 놀 때도 있었고, 이웃 동네 아이들도 함께 놀 때가 있었다. 학교 운동장이라도 있으면, 동네를 따지지 않았다. 놀 때는 한두 살 나이 차이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친구라고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었고, 형이나 누나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어울렸던 것 같다. 여러 명이 함께하는 게임도 그냥 편을 나누어 아무 거 리킬 없이 놀았다. 옆 동네로 놀러 가고 싶으면 초대 같은 것은 필요 없이 그냥 놀러 가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단혀 있지 않았고 항상 열린 채 받게 주었다. 해가 떨어지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면서 '잘가!'라는 인사를 건네는 정이 남치는 우리의 환경이었다. 다시금 그때로 돌아가면 또 그렇게 경계가 없이 놀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이라는 말에 조금은 기지개를 펴보고 싶은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쉽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서로를 배려하면서 조심해야 한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지인들로부터 연락이 오고,

같은 인간

비대면의 불안정한 만남이 대면으로 전환되면서 안도하기도 한다.

그런데 옛날 뉴스를 보다가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참피한 소식을 접했다.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외부 아이들이 놀았다는 이유와 기물 파손이라는 이름으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소식이었다. 사유지를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노는 것이 어떤 문제가 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갑자기 예전의 기억까지 소환되는 느낌이다.

입대아파트 주민을 비하하는 '휴거'라는 단어를 들었던 것이 3년 전이다. 그뿐 아니라 '임거' '엘거' '빌거'라는 단어들도 아이들의 입에서 자주 오르내렸다. 아이들의 이 말들은 어른들이 수치스럽고 추악하며 천박한 자본주의의 노예가 되면서 발생한 결과였다. 경계를 긋고 구분지어 서로를 나누자는 것인지 모르겠다. 관계를 맺어야 하는 인간 존재를 그고 작을, 많고 적을, 좋고 나쁨, 고급과 저급이라는 단순한 이분법의 논리로 분리시켜야만 속이 시원한 것인지 모르겠다. 결국 분리하고 구분지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할 뿐이다.

6년을 칠레에서 선교 사제로 살았던 필자는 안데스 산맥의 빙하가 녹아 흘러내려 만든, 거대하고 깨끗하며 끝이 보이지 않았던 호수들을 기억한다. 그 호수들은 유난히도 맑은 물을 담고 있었다. 빙하가 녹아내려 유입되는 물이 많았고, 그 물은 다시 개천이나 강과 같은 물줄기를 만들어 태평양 바다로 향하고 있었다. 호

수를 채우는 물이 있고, 바다로 호수 물을 빼내는 강줄기가 있으니 당연히 깨끗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들어가는 물만 있고 나가는 물이 없다면 어떻게? 그렇게 되면 아름다운 호수를 만들어 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물은 썩어서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죽은 호수가 되어 악취를 풍기는 것은 당연한 진리가 아닐까?

우리의 존재와 이 존재들의 관계성도 맑은 호수와 같은 모습으로 비쳐볼 수 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 구분이 나누려는 그 마음 깊숙한 곳에는 탐욕과 착취를 부추기는 악마의 폭력이 감추어져 있다. 결국 분리를 강조하여 차별을 만들어내는 것은 나쁜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살지 않겠다는 것으로 모두를 좌초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회에서 인간의 기본권은 물론 좋은 관계성을 유지시켰던 나눔·사랑·정이 갖든 보살핌은 폭력에 짓밟히고 악취에 묻혀 사라질 것이다.

예루살렘이 아버지 하느님의 뜻과 떨어져 있는 것을 보신 예수는 눈물을 흘리신다. 과부들을 등쳐 먹고, 어린이와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예루살렘은 하느님의 도성이라는 이름을 스스로 내던져 버렸기 때문이다. 하느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차별받을 수 없다. 단 지 우리가 감각의 노예가 되어 차별할 뿐이다. 하느님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지만 끝없는 소유욕을 부추기는 탐욕의 폭력이 다른 인간이라고 강하게 구분 짓고 있을 뿐이다. 결국 '나'와 '네'는 같은 인간인데 말이다.

기고

두 죽음 - 가해자 전두환과 피해자 이광영 씨

이광영 씨는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당시 광주 중심 사 승려로 활동하고 있었다. 1980년 5월 19일. 그는 '부처님 오신 날'을 준비하러 시내에 나갔다. 그리고 선량한 시민들이 공수부대의 무자비한 만행에 무참하게 희생당하고 있는 걸 목격했다. 불자의 양심으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부상자들을 후송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총상을 입었다. 정신을 잃은 채 기동병원 입원했다.

입원해 있던 중 합동수사본부에 끌려갔다. 적극 가담자로 분류됐다. 통합병원에서 특수 관리를 받으며 치료했다. 그러나 하반신이 마비되어 평생을 휠체어에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1급장애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광영 씨는 이후 신체적 고통을 이겨 내며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82년 부상자회 창립 임동공신으로 초대 총무를 맡았다. 85년도엔 경찰들이 묘지 참배를 방해하자, 장주인·김용대·김요한·김래항 등 '휠체어 5인방'이 선두에서 활로를 뚫었다. 그렇게 고수도로를 행진했던 일은 신화가 되어 두고두고 사람들의 입에 회자됐다.

그는 88년 5공정문화에 증인으로 참석하여 광주의 참상을 알리기도 했다. 전두환 씨 회고록이 발매가 된 '조비오 신부 사자명에 훼손 공판'에서는 헬기 기총소사에 대한 증언도 했다. 불구의 몸으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투쟁을 가결하게 했던 이광영 씨. 41년 동안

불면과 고통의 세월을 견뎌냈던 그는 마침내 건강이 악화되고 정신적 고통에 이르기까지 고통의 저수지에 몸을 던져 생을 마감했다. 만약 그가 광주의 비극을 외면했다면 종교 지도자로서 추앙받는 인생을 살았을지도 모른다. 슬프고 비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광주 학살 주범 전두환 씨는 어땠는가? 그의 만행과 추태는 필살로 형용하기도 참피할 정도다. 진짜로 '아더매치'다. 그러나 주목할 공동체 정신으로 살아 온 우리는 '가해자들이 광주 학살의 진실을 밝히고 사죄하면 용서할 수 있다' 고 했다. 그럼에도 전두환은 끝까지 배 짜리며 오리발로 일관했다. 천수를 누릴 것 같던 그는 마침내 화장실에서 숨을 거뒀다.

가해자 전두환 씨는 아주 편안하게 죽었다. 이에 비해 피해자 이광영 씨는 가나긴 고통 끝에 갔다. 억울하고 불공평하지만 엄연한 현실이다. 우리들은 미치고 전장할 노릇인데, 그는 달관이라도 했는지 유서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5·18에 원한도 없으려니와, 작은 서운함들은 다 묻고 가니 흥분하다."

늦었지만 '광주 학살 원흉 전두환'이 하늘에서라도 이광영 씨와 피해자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길 바란다. 우리 또한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진상 규명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다. 5월 가족들의 극단적 선택이 더 이상 없기를...

社說

국립 심뇌혈관센터 건립 질질 끌지 말라

질병관리청이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예산 집행에 미루자 전남 지역에서 반발이 크게 확산하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잇그제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을 조속히 실행하라"며 "질병관리청이 이미 확보한 44억 원 내에서 조성 나노산단에 부지 매입 절차를 조속히 착수하고 확실한 사업 추진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사회단체연합회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같은 날 청와대 앞에서 삭발 농성까지 벌였다. '국립심뇌혈관센터 신속 설립 추진 장성군 대책위원회' 등은 청와대 앞 분수 광장에서 센터 설립을 촉구하는 켈기대회를 열었다.

전남 지역민과 자치단체 등의 집단 반발은 사업이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국립심뇌혈관센터는 뇌졸중·심근경색 등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연구 및 진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장성 나노산단 일원에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올해 예산에 반영된 실시설계비 및 부지 매입비 44억 원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질병관리청이 발주한 용역 결과 당초 490억 원이었던 사업비가 1500억 원으로, 부지는 2만 3000㎡에서 3만 8000㎡로 늘어난 탓이라고 한다. 질병관리청은 사업비와 부지·인력 등 센터 규모를 키우는 데 준비 기간이 필요한 센터 부지 관련 증액 예산을 2023년도에 반영한다는 명분으로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관련 예산을 전혀 넣지 않았다.

국립심뇌혈관센터 건립은 단순히 지역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를 충족하는 켈기대회였다. 전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사안으로 정부 사업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집행해야 할 현안이다.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올해 안에 국립심뇌혈관센터 건립 부지를 사들이는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법령 정비해 전두환 미납 추징금 받아 내야

전두환 씨의 사망으로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한 사후 집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법원은 1997년 전 씨에게 내란과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했지만 아직까지 956억 원을 환수하지 못했다.

2013년에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금'을 제정하고 검찰이 전담반을 꾸려 은닉재산 추적에 나서자 전 씨는 자진납부 계획서를 내놓기도 했었다. 당시 1672억원이란 자진납부 계획서를 낸 것을 보면 전 씨가 충분히 추징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그런데도 노태우 전 대통령 2013년 2628억 원의 추징금을 완납한 것과 달리 줄곧 버티기 행태를 보여 왔다.

한데 전 씨의 사망으로 추징금 환수가 더욱 어렵게 됐는데 우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추징금은 상속되지 않기에 사망자에 대해서도 추징금 집행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과거 친정배

전 의원이 상속 재산에도 추징이 가능하도록 법안을 발의했지만 회기 종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전 씨처럼 뇌물로 인한 거액 추징금을 의도적으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망 후에도 환수하도록 하는 법률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도 뇌물죄를 비롯한 특수범죄에 대한 몰수 추징에 대해 상속재산의 집행이 가능할지 법률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유기홍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한 '전두환 재산 추징 3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은 전씨로부터 친족이나 제3자가 상속·증여받은 불법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법안을 확대 개편하는 것으로도 사후 추징은 가능하다. 쉽지는 않겠지만 끝까지 추적해서 전 씨가 남의 명의로 숨겨 놓은 재산을 찾아내는 한편 '불법은 죽어도 불법'이라는 원칙 아래 사후 추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세계사를 훑어보면 독재자의 최후에는 공통점이 있다. 총살이나 암살을 당하거나 자살이 아니면 망명 후 사망하는 등 처참한, 최소한 쓸쓸한 최후를 맞는다는 점이다. 더불어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어도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는 무치(無恥)의 정신 소유자라는 점이다.

독재자의 사전적 정의는 '모든 일을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사람', '절대 권력을 가지고 독재 정치를 하는 사람'이다. 독재자는 생전에 인권 탄압은 물론 학살을 저지르거나, 민주화 세력을 제거하는 데 권력을 휘두른 탓에 반드시 민중이나 정적에 의해 제거되는 것이 역사의 법칙이다.

인류 최악의 독재자였던 독일의 히틀러는 1945년 4월30일, 전쟁 패배의 상황을 돌이킬 수 없음을 알고 지하 벙커에서 자신의 부인과 함께 자살한다. '인간 백장'이라 불렸던 소련의 스탈린은 자신의 별장서 측근들과 연회를 가진 뒤 잠들었는데, 다음 날 쓰러진 채 발견됐다. 그의 나이 72세, 공식적인 사인은 뇌일혈이지만 이후 독살설 등이 제기되면서 아직도 그의 사인은 의문에 휩싸여 있다.

24년간 루마니아를 끔찍한 독재로 통치했던 차우셰스쿠는 아내와 함께 총살당했다. 그 장면은 고스란히 녹화되어 전 세계에 퍼졌다. 차우셰스쿠는 성난 군중을 피해 북한 등으로 해외 도피를 시도하다가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 총살당하는 순간까지 "너희는 반역자다"라고 외쳤다고 한다. 이 부부에게 총을 쏘려는 지원자가 너무 많아 몇 명만을 추려야 했으며, 부부의 몸에 박힌 총알은 모두 120발이나 됐다.

리비아의 카다피도 차우셰스쿠와 마찬가지로 시민 손에 최후를 맞았다. 팔리핀의 마르코스는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나 하와이로 망명 후, 호놀룰루에서 심장병으로 숨졌다.

5·18 학살 책임자이자 군부 독재자였던 전두환 씨는 여타의 독재자들과 달랐다.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사면돼 일상으로 돌아갔으며, 국민의 지탄에도 불구하고 망명하지 않은 채 90세까지 살았으니 그는 독재자보다 장수했다. 다만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다른 독재자들과 궤를 같이한다.

/재희총 사회부장 chae@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